



[운문] 다음 시를 연결해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시오.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회화적
제재	유리창	주제	자식을 잃은 슬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여 차분한 어조로 표현함. •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위법이 나타나며, 역설적 표현이 사용됨. 		

죽은 아이와 화자를 단절시키면서도 연결하는 이중적 매개체

자식을 잃은 슬픔이 복받침.

차가운 이성으로 슬픔을 억누름.

대위법 -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병치함.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죽은 아이의 영상 → 화자가 유리창에 붙어 서서 낸 입김 자국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유리창에 어린, 아이의 영상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선명하게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안타까움과 간절함.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아이를 보지 못하는 허탈감, 상실감을 파도의 이미지로 형상화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눈물이 고인 눈에 별처럼 빛나는 아이의 모습이 보임.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행동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나,
대위법, 모순 형용, 역설법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죽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나타냄. → 폐결핵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나뭇가지에 잠시
머물렀다가 날아가는 - 정지용, 「유리창 1」
산새같이 허망하게 떠난 아이

- ① 감정(탄식)의 집약적 제시
- ② 10구체 향가의 낙구 전통을 계승

